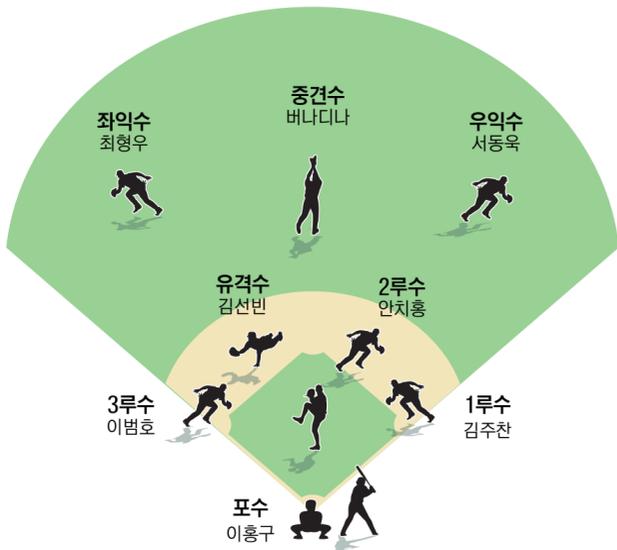


행복한

KIA 타순짜기 고민이네

■ 2017 시즌 예상 라인업



이범호·김주찬에 최형우·버나디나 가세... 타선 목적
중견수 등 외야 자원 풍부... 유격수 백업 찾기 시급

KIA 팬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따뜻한 스토브리그다. 나지완과 양현종이 FA 계약을 통해 내년 시즌에도 '프랜차이즈 스타'로 기록을 쌓아가게 됐고, '100억 사나이' 최형우까지 KIA 유니폼을 입었다. 5년 만에 가을 잔치의 기쁨을 누렸던 팬들의 눈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공격력으로는 어떤 팀에 뒤지지 않는 오테를 배출하는 게 가능해졌다. 올 시즌에도 KIA는 김주찬-나지완-이범호로 이어지는 목직한 중심타선을 구축했다. 서동욱과 김주형이라는 예상 밖 자원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톱타자와 하위 타순의 고민은 있었지만 노수광이라는 톱타자 후보도 튀어나왔다. 내년 시즌 타순의 경우의 수는 올해보다 더 다양해졌다. 최형우·김주찬·나지완으로 좌익수 선수를 할 수 있고, 안치홍

이 돌아온 2루 자리에도 서동욱·김주형으로 틀을 구성할 수도 있다. 브릿 필이 빠진 1루도 김주찬·김주형에게 잘 어울린다. 외야는 치열한 전쟁터다. 특급 선수들이 포진한 좌측에 이어 새로운 외국인 선수 버나디나가 특급 수비로 외야 한 자리를 선점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숨막히는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근성과 스피드로 무장한 노수광, 수비로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김호영 등 신진급 선수와 올 시즌 우익수로도 역할을 수행한 베테랑 서동욱·김주형이 한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타선의 무게를 뚝뚝히 이흥구(포수), 김주찬(1루수),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이범호(3루수), 최형우(좌익수), 버나디나(중견수), 서동욱(우익수), 나지완(지명타자) 그리고 김주형이

대기하는 라인업이 가능하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쉬어갈 곳 없는 부담스러운 라인업이다.

'물오른' 김주찬·나지완·이범호, '파워를 갖춘 전천후 수비수' 서동욱·김주형이라는 올 시즌 자원에 최형우·버나디나는 새로운 선수까지 등장하면서 2017 시즌 타순 짜기는 행복한 고민이 됐다. 하지만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

중복된 포지션과 스타일의 선수들 교통정리가 공격력 최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조화도 고민해야 한다. 김선빈에게 집중되는 유격수 자리의 백업 찾기도 필요하다.

좋은 카드를 손에 들고 게임에 나서게 된 김기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2017 시즌이다. KIA와 약속된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에서도 김기태 감독의 선택과 결과에 눈길이 쏠릴 시즌이기도 하다.

KIA를 향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어떻게 2017시즌의 구슬이 깨어져 나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네소타 프린트
"지명타자는 박병호"

미네소타 트윈스는 박병호(30)를 2017년 주전 지명타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생겼고, 프린트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MLB닷컴은 27일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박병호와 경쟁하는 케니스 바르가스를 트레이드 투수를 얻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분석하면서도 "새로운 프린트가 박병호의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MLB닷컴은 미네소타 팬의 질문을 받아 이에 대해 답하는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했다. 한 팬은 박병호와 바르가스의 활용법을 물었다.

MLB닷컴은 "트레버 플루프가 방출되고, 미겔 사노가 주전 3루수로 이동했지만 바르가스가 타석에 서는 장면을 자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호를 주전 지명타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입성 첫해인 올해 62경기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4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초 빅리그에 연착륙하는 듯했으나 빠른 공 공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에 빠졌다. 6월부터는 오른손목 통증이 겹쳤고 결국 7월 2일 마이내리그로 내려갔다. 이후 박병호는 8월 25일 오른손 중지 수술을 받아 시즌을 마감했다.

박병호의 대안으로 떠오른 타자가 바르가스다. 바르가스는 빅리그 47경기에서 타율 0.230, 10홈런, 20타점을 올렸다. 아직은 박병호가 주전 경쟁에서 앞선 모양새지만 새로 부임한 테드 레빈 단장은 아직 박병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힘겨운 시즌을 보낸 박병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 속에 내년 2월 말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연합뉴스

ML 마무리 전성시대
채프먼 8600만달러 양키스행

메이저리그는 바야흐로 뒷문지기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마크 멜란슨은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4년 6200만달러로 역대 마무리 투수 계약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그리고 이 기록은 사흘이 지나지 않아 깨졌다. 시카고 컵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아롤디스 채프먼(뉴욕 양키스)은 5년 8600만달러로 멜란슨의 계약 금액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처럼 마무리 투수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불펜 야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27일 2016년을 '불펜 투수의 해'라고 정의했다. MLB닷컴에 따르면 올해 불펜 투수들은 역대 최다인 1만5893.2이닝을 소화했고, 선발 투수들의 이닝은 평균 5.2이닝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제는 4이닝 가까이 막아줄 수 있는 불펜진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 정점은 바로 올해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었다. 시카고 컵스가 지난 7월 유망주 4명을 내주고 영입한 챔프먼은 포스트 시즌 17경기 중 13경기에서 15.2이닝을 소화했고, 2승 4세이브 평균자책점 3.45로 '열쇠의 저주'를 깨는 데 1등 공신이 됐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계투 앤드루 밀러는 불펜 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뒤엎어놓았다. 밀러는 포스트 시즌 10경기에서 5회에 3차례, 6회에 2차례, 7회에 4차례, 8회에 1차례 등판하면서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인 19.2이닝을 기록했다.

테리 프랑코나 클리블랜드 감독은 포스트 시즌이었기 때문에 불펜을 과감하게 기용했다고 하지만 이번 밀러의 활약은 불펜 투수의 비중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파도를 가르며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와이 빌라봉 파이프 마스터스에서 한 서퍼가 파도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FC '베테랑' 이우혁·'멀티플레이어' 이한도 영입

프로축구 광주 FC가 2017 시즌 전력강화를 위해 전북 현대에서 미드필더 이우혁(23)과 수비수 이한도(22)를 영입했다.

프로 6년차 이우혁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나이별 대표팀을 두루 지낸 이우혁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강원엔 입단, 전북을 거쳐 통산 82경기 3골 11도움을 기록했다.

184cm 69kg의 장신으로 발기술이 좋고 패싱과 킥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군 입대로 자리를 비운 여름의 대체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전북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한도는 최전방 공격수(스트라이커)부터 최후방 수비수(센터백)까지 모두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다.



이우혁



이한도

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이 높다. 남기일 감독은 올 시즌 FC 서울에서 6경기 출전에 그친 신예 김민혁을 영입, 36경기에서 3골 8도움을 기록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키워냈다.

남기일 감독은 "이우혁은 장신임에도 기술력이 좋고, 패싱 능력이 뛰어나며, 이한도는 스피드가 뛰어난 멀티플레이어로 공수 밸런스 조율능력이 좋다"며 "광주의 색이 누구보다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된다. 동계훈련 기간 조직력만 잘 가다듬는다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탁월한 안목과 지도력으로 원석을 보석으로 바꾸고 있는 '남기일 매직'이 다시 한번 발휘될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이상화 2017 삿포로 쇼게임 출전권 획득

'빙속여제' 이상화(스포츠토트)가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출전권을 따냈다.

이상화는 27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3회 스피드 및 제71회 종합선수권대회 겸 동계아시안게임 선발전 여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38초64로 결승선을 통과, 김민선(서문여고·39초47)을 0.83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1위를 차지한 이상화는 김민선과 함께 이번 1차 레이스 1, 2위 선수에게 주어지는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500m 출전권을 획득했다.

7조에서 김현영(한국체대)과 경쟁한 이상화는 아웃코스에서 출발해 첫 100m 구간을 10초51로 통과했고, 나머지 400m 구



이상화

간을 28초13에 주파하며 38초6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남자부 500m에서는 차민규(동두천시청)와 모태범(대한항공)이 나란히 1.2위에 올라 동계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됐다.

12조 인코스에서 출발한 차민규는 35초05의 대회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고, 함께 레이스를 펼친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은 35초59로 2위에 올랐다. 남자 단거리 '차세대 감자' 김태윤(한국체대)은 코너에서 넘어지면서 실격해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를 날렸다.

/연합뉴스